

EADC, 동아시아 댐기술교류회의의 태동과 현재, 그리고 미래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대담회 국제협력부회장

1. 서론

인류문명의 역사는 하천 및 수자원개발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다목적댐은 수자원활용을 위한 전통적이며 대표적인 시설물로서 용수공급, 수력에너지 생산, 홍수조절, 광산폐기물 저류, 수자원저류, 주운, 토석류 방지, 수상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주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대형구조물인 만큼 수몰지 발생, 댐 파괴 시 막대한 피해발생, 넓은 수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증발산 손실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미기후영향, 수생태계의 교란, 하류하천의 유황변화, 정체수역의 형성, 상류로부터의 유사공급 차단으로 인한 해안침식, 하천 내 어류의 종다양성의 감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개발 시대에는 다목적댐의 건설을 통한 장점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댐의 단점에 대한 경각심이 표면에 드러나지 못하였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과 관련한 환경의식이 고취되면서 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많은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70~80년대 다목적댐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다목적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사건을 전제로 동강댐 건설에 반대의를 표명하였고, 2000년 6월 5일 공식사업명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댐이 건설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논의의 시발점은 1990년 한강유역에 내린 대홍수라 할 수 있다. 서강과 동강이 만나 남한강이 되는 영월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잦은 수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1990년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내린 393mm의 집중호우로 31명의 인명피해와 1,48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지역주민들이 댐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1991년에서 1997년까지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9월 건설예정지를 공시하였으나 당시 그 세력이 급팽창한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주민이 합세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댐 건설의 찬반을 놓고 정부부처, 지역주민, 자치단

체, 환경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등 국제환경단체들도 댐건설반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영월댐 문제는 국제적인 환경이슈로까지 부각되었다.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혁기획단은 영월댐 건설 타당성 조사팀을 구성하여 물 수급, 홍수 관리, 댐 안정성, 환경보호, 문화유적 보호 문제 등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댐 건설보다는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백지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는 새로운 기류가 팽배하여, 2000년 말 ‘세계댐위원회(World Dam Commission, WDC)’가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세계적으로 신규 댐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댐에

대한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댐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대담회(Korea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이후 KNCOLD)’는 ‘한국수자원공사(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WACO. 현재 C는 K-water)’와 함께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댐 관련 동향에 발맞추어 나가고, 댐 관련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댐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대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이후 ICOLD)’ 연차회의의 국내유치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East Asia Area Dam Conference, 이후 EADC)’가 탄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EADC의 태동배경에 있었던 각종 활동을 정리하고, 2004년 제1회 EADC 연차회의 후 제11회 EADC까지 진행되어온 과정, 그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부족으로 유치에 실패하였다.

2003년으로 예정된 ‘제71차 ICOLD 연차회의’는 ‘제21차 ICOLD 총회(Congress)’와 병행하여 캐나다의 몬트리올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KNCOLD는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시작하였다.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NCOLD는 2001년 9월 9

2. EADC 태동 배경

2.1 ICOLD 연차회의 유치

2000년 KNCOLD는 2002년으로 예정된 ‘제70차 ICOLD 연차회의(Annual Conference)’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최종근 회장),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8차 ICOLD 연차회의’에서 브라질의 이구아수와 경합하였으나, 사전준비와 국제적 네트워크

일부터 15일까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 69차 ICOLD 연차회의'에서 일본 및 독일 대표단과의 친분을 쌓는 한편 특히 한일 양국 대담회장은 정기 기술교류에 합의를 하여 EADC의 모태가 되는 '한일대담회 기술교류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또한 KNCOLD는 2002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미국대담회(United States Society of Dams, 이후 USSD) 연차회의'에 참가하여 KNCOLD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ICOLD 총재 Mr. C.V.J. Varma, 부총재 Dr. L. Berga, USSD 회장 Mr. W.B. Bingham, USSD 전회장 R.W. Kramer, H.L. Blohm, A.H. Walz, 그리고 일본, 중국, 인도 등 각국 대담회 회장 및 대표단과의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의 '제72차 ICOLD 연차회의' 서울 유치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Mr. Arther H. Walz와 일본의 Dr. Tadahiko Sakamoto는 한국에 대해 남달리 큰 호감을 가진 이들로, 2001년 '제71차 ICOLD 연차회의'시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하여 2001년 하반기 KNCOLD가 주최한 '2001년 댐기술 심포지엄'에도 참석하여 여러 가지 협조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다. 당시 Mr. Walz는 미육군공병단을 대령으로 예편한 Geotech 전문가로 USSD회장을 역임한 개인 컨설턴트로서 그 이후에도 한국과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r. Sakamoto 역시 한때 한국에 파견근무를 한 바 있어 한국의 소주와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한국 유행가를 좋아하고, 한국말도 곧 잘하는 이로서 당시 일본 '토목연구소(Public Works Research Center, PWRI)'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제72차 ICOLD 연차회의' 대한민국 서울유치가 확

정된 것은 2002년 9월 27일 브라질 이구아수 연차회의 집행위원회에서였다. KNCOLD가 단독으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간 쌓아온 홍보 노력과 네트워크에 의한 쾌거였으며, 당시로서 ICOLD 연차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문 큰 행사였다.

2. 2 한일대담회 기술교류회

2001년 봄 90년대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은 후 정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해 12개의 신규 댐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00년 말 발표된 WDC의 'Dams and Development' 보고서와 미국의 일부 댐 해체 등을 바탕으로 환경론자들과 일부 지역주민의 댐 건설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KNCOLD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COLD 연차회의 국내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2001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69차 ICOLD 연차회의'에 대폭 강화된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여기서 한일 양국 대담회장 간 기술교류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 한국유치를 위해 '일본대담회(Japan Commission on Large Dams, 이후 JCOLD)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2001년 한국대담회 댐기술 심포지엄'과 함께 '제1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국제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일본 이외에 미국, 스페인의 댐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다. 그림 1은 양국 대담회 간 협약을 진행하는 장면이고, 그림 2는 협약체결 후 양국 대담회장이 약속을 나누는 장면이다. 행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제2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는 2002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의 동경 미나토구 Toranomon Pastoral에서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었

표 1. 제1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및 2001년 댐기술 심포지엄 행사개요

1.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01. 10. 30(화)~10. 31(수), 2일간 • 장소: 서울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측: 한국대담회 회장단 / 수공 댐본부장·처장단 - 일본 측: Amino 일본대담회 회장 등 5인(Sakamoto, Irie, Harada, Sayama) • 행사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자</th> <th>시간</th> <th>행사</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0.30</td> <td>15:00~17:30</td> <td>기술교류회 1차 회의</td> <td>- 실무회의 - 한·일대담회 현황 소개 - 기술협력 합의서 체결에 관한 토의</td> </tr> <tr> <td>18:00~20:00</td> <td>환영만찬</td> <td></td> </tr> <tr> <td>10.31</td> <td>10:00~12:00</td> <td>기술교류회 2차 회의</td> <td>- 주제토론 - 기술협력합의서 체결</td> </tr> </tbody> </table> 				일자	시간	행사	내용	10.30	15:00~17:30	기술교류회 1차 회의	- 실무회의 - 한·일대담회 현황 소개 - 기술협력 합의서 체결에 관한 토의	18:00~20:00	환영만찬		10.31	10:00~12:00	기술교류회 2차 회의	- 주제토론 - 기술협력합의서 체결																									
일자	시간	행사	내용																																								
10.30	15:00~17:30	기술교류회 1차 회의	- 실무회의 - 한·일대담회 현황 소개 - 기술협력 합의서 체결에 관한 토의																																								
	18:00~20:00	환영만찬																																									
10.31	10:00~12:00	기술교류회 2차 회의	- 주제토론 - 기술협력합의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대담회 및 댐 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한일 대담회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댐 건설·관리에관한신기술·정보교환(분과위원회활동강화등 - 국제대담회 활동에서의 상호협력 합의 등 (2004년 국제대담회 한국유치) 																																											
2. 2001 댐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01. 10. 31. 13:30~19:30 •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회의장 • 참석인원: 250여 명 • 주제: 댐 사업 국제동향과 우리의 선택 • 세부일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내용</th> <th>담당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3:30~14:00</td> <td>댐기술 심포지엄 참가자 등록</td> <td></td> <td></td> </tr> <tr> <td>14:00~14:20</td> <td>개회식</td> <td></td> <td></td> </tr> <tr> <td>14:20~15:20</td> <td>• 개회사</td> <td>고석구</td> <td>회장</td> </tr> <tr> <td>15:25~17:10</td> <td>• 격려사</td> <td>최영철</td> <td>건교부 수자원국장</td> </tr> <tr> <td>17:10~18:00</td> <td>• 축사</td> <td>선우중호</td> <td>명지대학교 총장</td> </tr> <tr> <td>18:00~19:30</td> <td>제1부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사업 국내외 동향 • Current Status and Trends in Dam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td> <td>이희승 Walz, A.H.</td> <td>한국대담회 부회장 전 미국대담회 회장</td> </tr> <tr> <td></td> <td>제2부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Activities on Dams in Japan • New Trends in Hydrological Safety of Dams • 바람직한 댐사업 방향 </td> <td>Sayama, M. Berga, L.</td> <td>일본대담회 전무이사 국제대담회 부회장</td> </tr> <tr> <td></td> <td>종합토론</td> <td>윤용남</td> <td>부회장</td> </tr> <tr> <td></td> <td>석식</td> <td>고석구</td> <td>회장</td> </tr> </tbody> </table> 				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13:30~14:00	댐기술 심포지엄 참가자 등록			14:00~14:20	개회식			14:20~15:20	• 개회사	고석구	회장	15:25~17:10	• 격려사	최영철	건교부 수자원국장	17:10~18:00	• 축사	선우중호	명지대학교 총장	18:00~19:30	제1부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사업 국내외 동향 • Current Status and Trends in Dam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이희승 Walz, A.H.	한국대담회 부회장 전 미국대담회 회장		제2부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Activities on Dams in Japan • New Trends in Hydrological Safety of Dams • 바람직한 댐사업 방향 	Sayama, M. Berga, L.	일본대담회 전무이사 국제대담회 부회장		종합토론	윤용남	부회장		석식	고석구	회장
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13:30~14:00	댐기술 심포지엄 참가자 등록																																										
14:00~14:20	개회식																																										
14:20~15:20	• 개회사	고석구	회장																																								
15:25~17:10	• 격려사	최영철	건교부 수자원국장																																								
17:10~18:00	• 축사	선우중호	명지대학교 총장																																								
18:00~19:30	제1부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사업 국내외 동향 • Current Status and Trends in Dam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이희승 Walz, A.H.	한국대담회 부회장 전 미국대담회 회장																																								
	제2부 :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Activities on Dams in Japan • New Trends in Hydrological Safety of Dams • 바람직한 댐사업 방향 	Sayama, M. Berga, L.	일본대담회 전무이사 국제대담회 부회장																																								
	종합토론	윤용남	부회장																																								
	석식	고석구	회장																																								



그림 1. 제1차 한일 대댐회 기술교류회 진행 모습



그림 2. 제1차 한일 대댐회 기술교류회 후 양국 대댐회장 간 악수(좌: Amino JCOLD 회장, 우: 고석구 KNCOLD 회장)

다. 한일 대댐회 간 지속적 교류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환경친화적 댐 건설·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대댐회는 공동 국제심포지엄에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는바, 기술교류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한국대표단의 참가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제2차 일·한 대댐회 기술교류회 참가개요

1. 참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대댐회 간 지속적 교류협력 관계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협의(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 환경친화적 댐 건설·관리에 관한 정보교류 등 • 수자원 개발·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환경친화적 댐 건설·관리방안 등 기술동향 파악 - 일본의 댐 건설 현황 파악
2. 행사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02. 8. 25.(일)~8. 2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26.(오전: 일·한 대댐회 기술교류회의 / 오후: 국제심포지엄) - 8. 27.: 현장견학(Roku-Zeki 지역 물 관리 / Takizawa댐 건설현장) • 장소: 일본 동경 미나토구 Toranomom Pastoral • 주요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OLD 회장: Mr. C.V.J. Varma ▶ 미국 대댐회: Mr. Arthur H. Waltz - 세계은행관계자: Mr. Alessandro Palmieri ▶ 한·중·일 대댐회 대표 • 한국대댐회 대표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고석구 ▶ 부회장: 이순탁, 이희승, 이규환 ▶ 이사 및 수공: 김우구, 임희대, 박한규 • 일·한 대댐회 기술교류회에서의 발표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제정: 김우구 - 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분위기: 박창운 - 한국의 댐 안정성: 임희대 • 국제세미나 발표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의 저수지의 역할과 관리: 이순탁

제3차 한일 대댐회 기술교류회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전에서 국제 댐 심포지엄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2004년 서울개최가 확정된 '제2차 ICOLD 연차회의'에 대한 Check-up Meeting의 성격으로 ICOLD 총재 Mr. Viotti(브라

질)와 사무총장 Mr. Gereget(프랑스), 중국대댐회의 Dr. Jia Jinsheng(중국, 훗날 ICOLD 총재가 됨), 미국의 Mr. Walz 등이 초청되었다. 제3차 한일 대댐회 기술교류회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았고, 행사의 개요는 표 3과 같다.

표 3. 제3차 한·일 대댐회 기술교류회 및 댐안전 국제심포지엄 행사개요

1. 주요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 영접 및 기념촬영	11.10 09:00~09:10	현관 (3층)
• 연구원-일본토목연구소 이행각서(IA) 체결	11.10 09:10~09:55	임원회의실(4층)
• 서울회의 준비현황 보고		
• 한일대댐회	11.10 10:00~11:50	대회의실 (5층)
• 환영 오찬	11.10 12:00~13:30	간부 식당
• 댐안전 국제심포지엄	11.10 14:00~17:50	대강당 (6층)
• 환영 만찬	11.10 18:00~19:30	직원 식당
• ICOLD 2004 서울회의 Check-point meeting	11.11~11.12	충주댐, 쉼라톤워커히, 한국민속촌
• 환송 만찬	11.12 18:00~20:00	쉼라톤워커히
2. 댐안전 국제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OLD: Mr. Viotti(총재), Mr. Bergeret(사무국장) - 중국: Mr. Gao Jizhang(중국 水·利水·電科學研究院長, IWHR), Mr. Jia JinSheng (ICOLD부총재, IWHR 부원장) - 미국: Mr. Walz(전 미국대댐회장) - 일본: Dr. Toyoda(JCOLD 부회장), Dr. Sakamoto(토목연구소 이사장), Mr. Sayama(JCOLD 전무이사), Dr. Yamaguchi(토목연구소 연구원) - 국내: 역대 수자원국장·토목학회장·수자원학회장·한국대댐회 임원 및 회원, ICOLD 2004 서울회의조직위원, 시공·용역사임직원 공사직원 등 총 350명 		
3. 2003 한일 대댐회 기술교류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COLD: 고석구 회장, 윤용남 교수, 이희승 부회장, 이길성 교수, 이규환 댐본부장, 김우구 연구원장 - JCOLD: Toyoda 부회장, Sakamoto 이사장, Sayama 전무이사, Yamaguchi 박사, Nagasawa • 주요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10:10 개회사 및 임원소개 고석구 KNCOLD 회장 - 10:10~10:20 일본 측 답사 및 임원소개 Toyoda JCOLD 부회장 - 10:20~10:50 한국 측 주제발표 김우구 KNCOLD 전임이사 - ICOLD 2004 서울회의 준비현황 · 한국의 댐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및 국가댐안전 프로그램 구축현황 - 10:50~11:20 일본 측 주제발표 Sayama JCOLD 전무이사 - 2004 Asia-Pacific Grouping Meeting 계획 · 일본의 댐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 11:20~11:50 토론 및 폐회 - 한·중·일 3국 대댐회 기술교류회의 추진 <p>· 향후에는 한·중·일 3개국 대댐회 정기기술교류회로 확대하여 추진하되 협약체결 및 세부사항 논의는 2004년 ICOLD 연차회의 기간 중에 진행 · 대규모 참가단 파견 및 학술교류를 통해 2004년 ICOLD 연차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p>		

2.3 EADC의 출범

2004년 5월 21일 12:30 서울의 웨라톤워커히호텔에서 한국대담회, 일본대담회, 중국대담회 간 기술협약이 체결되었다(그림 3).

‘제72차 ICOLD 연차회의’(2004. 5. 16.~22., 서울 웨라톤워커히 호텔)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제3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3개국 대담회 회장과 부회장, 전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루어졌고, 정기 기술교류회의 명칭은 ‘동아시아담기술교류회(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EADC)’로 결정하였다. 협약서에 명시된 주요내용과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 댐 관련 주요현안 및 대책 공유
 -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ICOLD 연차회의 시 3개국 대담회 기술교류회의 개최
 - 향후 아시아지역 대담회 기술교류회의로 확대
- 추진방안
 - 매년 교차방문을 통한 기술협력 및 교류회의 실시
 - 제1차 회의는 2004년 10월경 중국 의창(삼협댐)에서 개최
 - 제2차 회의는 2005년 일본에서 개최
- 기대효과
 - 한일 대담회 간 기술교류에 중국 참여, 3개국 확대 및 장차 KNCOLD가 주도하여 아시아지역 대담회 간 기술교류 협력체로 발전



그림 3. 한·중·일 대담회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

3. EADC 개최현황

2004년 제1회 EADC가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2009년까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으나, 매년 개최되는 것이 주제발굴 및 참가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된 의견에 의해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2011년 제7회가 중국 정주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 제8회 EADC는 일본이 2012년 ICOLD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연속해서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EADC 현황을 행사 개요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ADC는 통상 2일간의 심포지엄과 문화행사(Cultural program), 기술견학(Study tour)으로 구성되며, 심포지엄 2일차 오후에는 시티투어(City tour) 또는 휴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포지엄 개최식은 각국 대표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조강연을 듣고, 각국 사무국장이나 그간의 각국 대담회 및 댐 사업 실적을 내용으로 국가별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견학은 2~3개의 코스를 참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코스에는 댐 현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환영만찬과 폐회를 겸한 환송만찬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참가비에는

표 4. EADC 개최현황

개최지	행사명	주제	개최일자
중국 서안	제1회 EADC	Current Issues on Sediment Management and Dams	2004. 10. 7.~13.
일본 동경	제2회 EADC	Sediment management and Dams	2005. 10. 23.~30.
한국 대전	제3회 EADC	Sustainable Dam Technology for the Future	2006. 10. 15.~21.
중국 청두	제4회 EADC	Modern Technology of Dams	2007. 10. 12.~18.
일본 요코하마	제5회 EADC	Co-existence of environment and dams	2008. 10. 19.~24.
한국 서울	제6회 EADC	Climate Change, Future Challenge of Dams	2009. 10. 25~31.
중국 정주	제7회 EADC	Modern Technologies and Long-Term Behavior of Dams	2011. 9. 27.~29.
한국 서울	제8회 EADC	Rehabilitation of Aging Dams	2014. 10. 20.~23.
일본 삿포로	제9회 EADC	Innovative Technologies for Dams and Reservoirs Toward the Future Generations	2016. 9. 26.~30.
중국 정주	제10회 EADC	1. Intellig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hydraulic projects 2. Under water detection and reinforcement 3.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umped storage power station	2018. 10. 15.~19.
한국 대전	제11회 EADC	Current Issues and Innovative solutions in Dam Engineering	2022. 9. 26.~30.

개최국 내의 모든 숙박과 교통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참가자는 항공료만 별도로 지불하면 되도록 개최국의 현실에 맞추어 책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11차례의 EADC가 개최되어 오면서 초기에는 퇴사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횡수를 거듭해 가면서 기후변화나 생태 환경과 같은 세계적인 이슈와 댐 신기술 등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그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제4회 EADC에 개최국 중국이 스웨덴대담회(SWEDCOLD)를 초청하여 참여함으로써 참가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3개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이 옵서버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2년 6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80차 ICOLD 연차회의' 시 Asia-Pacific Chapter에서는 태국 등 신흥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EADC가 좀더 개방되어 다른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각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해

소하고자 제5차 EADC가 개최된 2008년 10월 21일 Pacifico Yokohama에서는 각국의 대담회장들이 수정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제7회 EADC부터는 격년 주기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회와 6회 그리고 11회, 총 세 번의 EADC를 개최하였으며, 각 회의 행사결과보고서를 통해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 제3회 EADC

1) 개요

- 기간: 2006년 10월 15일(일)~21일(토)
- 장소: 대전 리베라호텔, 서울, 경주, 제주
- 행사구성: 심포지엄, Study tour 1~3, Cultural Program(표 5)

2) 참가인원: 256명

- 국내: 155명(정회원 및 원로회원 등)
- 일본: 48명(Takashi Toyoda 대담회장, Yoshino Ryuji 사무총장 외)
- 중국: 53명(Lu Youmei 대담회장, Jia Jinsheng 사

표 5. 제3회 EADC 일정표

일 자	주요행사		비고
	오전	오후	
10/15(일)	입국/Official Dinner I		서울
10/16(월)	Study Tour 3(청계천 및 시화호) Official Linner II		대전 이동
10/17(화)	등록 및 심포지엄 / Welcome Recorption		대전 리베라호텔
10/18(수)	심포지엄	수자원공사물관리센터 및 수돗물분석연구센터 방문 / Cultural Event Study	대전 리베라호텔
10/19(목)	Study Tour(1: 경주, 2: 제주도)		
10/20(금)	Study Tour(1: 경주, 2: 제주도)		
10/21(토)	서울 이동	서울 City Tour Parewell Ranguet	서울 리츠칼튼 호텔

무총장 외)
* 한국: 삼부토건, 유신코퍼레이션, 현대, 도화, 현대 산업개발, GS건설, 삼안, 수자원공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계룡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남광토건,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주), KIS-TEC, 동부엔지니어링

3) 심포지엄

- 제출논문: 38편(한국 2편, 일본 9편, 중국 17편)
- 구두발표: 21편 (한국 8편, 일본 5편, 중국 8편)

4) 기술견학(Study Tour)

- Study Tour 1: 예천양수발전소, 임하댐, 경주 시티투어(45명)
- Study Tour 2: 어승생댐(지표수), 지하수인공함양 연구시설, 광역상수도 취수원 (지하수), 강정수원지(복류수), 심부시추현장, 제주 시티투어(61명)
- Study Tour 3: 청계천 시화조력발전소(104명)

5) 소요경비

- 수입: 216,092,085원

- 국내: 91,030,000원
- 국외: 120,044,355원
- 관광공사지원금: 5,000,000원
- 발생이자: 17,730원
- 지출: 224,000,144원
- 차액: -7,908,059원

6) 기타

- 2006 제3회 EADC 행사는 국내 18개 단체회원사 및 일반회원 등 전체 등록회원의 65%가 참가
- 2005년 제2회 일본개최 때보다 배의 외국인 참가
- 대전광역시 협조(대전시장주최 만찬, 참가자기념품 제공)가 컸으며, 향후 상호협력의 유대관계 효과 기대
-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행사기획 및 진행에 대한 극찬(일본 및 중국대담회로부터 감사편지 접수)

3. 2 제6회 EADC

1) 개요

- 기간: 2009년 10월 25일(일)~31일(토)
-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및 댐 견학지
- 주요행사 내용(표 6)

표 6. 제6회 EADC 일정표

일 자	주요행사	
	오전	오후
10/25(일)	국외참가자 입국	VIP 만찬 (각국대표)
10/26(월)	국제심포지엄(개회식, 기조강연)	국제심포지엄 구두발표 / 환영만찬(Welcome reeption)
10/27(화)	구두발표 및 폐회식	시티투어 (창덕궁)
10/28(수) 10/29(목)	"기술견학 A"(Shared River & National Security) "기술견학 B"(Green Energy)	
10/30(금)	환송만찬(Farewel Bangeut)	
10/31(토)	국외참가자 출국	

2) 참가인원: 6개국 268명

- 한국: 191명(김건호 회장, 정회원 및 원로회원 등)
- 일본: 47명(Sakamoto 부회장 등)
- 중국: 25명(Zhang Guoxin IWHR부사무총장)
- 기타: 터기 2명, 인도네시아 2명, 호주 1명

3) 심포지엄

- 제출논문: 40편(한국 20편, 일본 8편, 중국 9편, 기타: 3편)
- 구두발표: 19편(한국 9편, 일본 6편, 중국 3편, 기타 1편)

4) 기술견학(Study Tour)

- Study Tour A(주제: 국가안보 및 공유하천): 평화의담,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담, 태풍전망대, 임진각 등(32명 참가)
- Study Tour B(주제: 녹색에너지): 시화조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안담, 새만금전시관, 갈대습지공원 등(33명 참가)

5) 소요경비

- 수입: 245,039,622원

- 국내: 130,705,085원
- 국외: 106,534,537원(일본 47명, 중국 25명, 터키2명, 인도네시아2명)
- 지원금: 7,800,000원(서울관광마케팅 460만, 관광공사 320만원)
- 지출: 256,786,950원
- 차액: △11,747,328원(대담회기금에서 충당)

6) 기타

- 아시아 빈곤국 초청 시도
 - 한국대담회 국제협력위원회 제안사항 반영
 - 아시아 빈곤국 초청(5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타지키스탄
 - ☞ 인도네시아대담회 부회장 등 2인 참가
- 언론보도
 - 행사개최 신문보도: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아시아경제
- 한·중·일 3개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지역 국가의 참여 확대
- 행사 준비, 기획 및 진행에 대한 극찬
- 학술프로그램, 사교행사 진행 원활, 기술견학 참가자들의 만족도 높음

표 7. 제11회 EADC 일정표

일자	주요행사
9. 26.(월)	입국
9. 27.(화)	기술투어(부안담-새만금홍보관-새만금방조제), VIP 만찬(각국 대표)
9. 28.(수)	국제심포지엄, 환영만찬
9. 29.(목)	기술투어(경천대-영주담-선비촌-소수서원), 환송만찬
9. 30.(금)	기술투어(이포보), 출국

- 준비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원들의 역할분담, 참여 활발

3. 3 제11회 EADC

1) 개요

- 기간: 2022년 9월 26일(월)~30일(금)
- 장소: K-water연구원 40주년 기념홀 및 기술견학 학지
- 주요행사 내용(표 7)

2) 참가인원: 3개국 91명

- 한국: 81명(박재현 회장 및 부회장, 단체회원사, 초청회원 등)
- 일본: 8명(SUGIYAMA Hiroyasu 회장, TADA Takashi 부회장 등)
- 중국: 2명(JIA Jinsheng 사무총장, ZHENG Cuiying 부사무총장)

3) 심포지엄

- 초록제출: 41편(한국 16편, 일본 3편, 중국* 22편)
- 구두발표: 16편(한국 14편, 일본 2편)
- 포스터발표: 3편(한국 2편, 일본 1편)



그림 4. 제11회 EADC

*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출입국 통제로 중국 초록
제출자의 On-site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4) 기술견학

- Pre-technical Tour(부안댐-새만금홍보관-새만금
방조제)
- Post-technical Tour(경천대-영주댐-소수서원·선
비촌-이포보)

5) 소요경비

- 수입: 102,197,438원
 - 중국: 5,243,218원
 - 일본: 16,673,648원
 - 국내(현장등록): 27,380,572원
 - 국내(사전등록): 12,900,000원
 - 지원금: 10,000,000원

- 기금: 30,000,000원

- 지출: 119,738,920원
 - 용역비: 113,573,000원
 - 직접집행: 6,165,920원
- 차액: △ 17,541,482원

6) 기타

- 언론보도
 - 행사개최 신문보도: 에너지데일리, 쿠키뉴스
- 한·중·일 3개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지역 국
가의 참여확대 노력 필요
-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행사기획 및 진행에 대한
극찬
- 학술프로그램, 사교행사 진행 원활, 기술견학에
대한 만족도 높음

4.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

지난 2004년 이후 일곱 차례 EADC가 각국을 돌아
가며 개최되었다. 필자가 2022년에 개최된 제11회
EADC에 참가하고 국내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한 경
험을 바탕으로 EADC가 당면해 있는 몇 가지 문제
점과 EADC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발표논문 수준의 질적 제고

매회 EADC의 주제는 주로 차기 개최국이 그 나라
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하면 결정되는 형태였다. 참가국들
은 그 현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문
제와 해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EADC 본연의 취지
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거나 모여진 논문들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깊이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특히 KNCOLD의 발표는 지나치게 K-Water
소속의 발표자로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댐 계
획 및 건설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국내 사정상 민
간기관이나 연구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장의 위축에
도 불구하고 댐기술이나 전문연구인력은 지속적으
로 유지·발전되어야 하므로, 국내를 비롯한 각국 대
담회는 이런 면에서 좀더 심도있고,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모을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매회 참가자를 모집하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발표 및 참가를 독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제대로
검증된 논문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
으로 EADC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
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발표의 수준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N-
COLD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댐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학술대
회를 개최하곤 한다. EADC를 개최하면서 유관행
사와 연계하는 것도 실용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4.2 참가비의 최소화

각국의 물가수준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참가자 1인당 참가비는 거의 200만원에
육박(2022년 외국인 등록비 \$1350, 환율 1400원
기준)하고 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국제행사인 점
을 감안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개인별 항공료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좀더 많은 참가자를 모으기 위
해서는 참가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검소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젊은세대 기술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숙박이나 기술견
학의 수준을 다양하게 하여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4.3 회원국의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Asia-Pacific 그룹의 국

가들이 EADC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4년 EADC를 처음 출범할
당시의 협약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전체국가
의 댐기술 교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2년간 대면 콘퍼런스가 열리지 못했고,
금회에도 각국의 상이한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지
침에 따라 참가인원의 불확실성이 컸고, 특히 심포
지엄 구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
회 중국의 경우 2인의 최소인원만 참여하고, 심포지
엄 발표도 없었다.

팬데믹 이전 2014년에 ICOLD-APG 회원국을 포함
하는 참여국 확대논의가 이미 한·중·일 3국 간 이루
어진 바 있었고, 이를 합의서에 포함시킨 개정안에
서명이 이루어져 발효 중에 있다. 하지만 초청 경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격 시행되지 못하였고, 팬데
믹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콘퍼런스 자체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실무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국 확대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실질적
확대에는 여러 장애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경비부담 문제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은
항공 및 등록비, 숙박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있으나,
상당수 APG 회원국 참가자의 경우 참가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
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ADC 외 APG 회원
국에 대한 참가비 디스카운트 방안, 참가비 외부 지
원방안, AWC(Asia Water Council), ICOLD-APG 세
션 등 유관행사와의 연계방안, 국내 개인 또는 기관
으로부터의 초청형식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라는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할 경우 한·중·일 3국 외 기타 APG 회원국들

표 8. EADC MOU 개정규칙

The Revised Agreement of the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Among
Korea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Chinese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And
Japan Commission on Large Dams

1. Purpose of the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KNCOLD, CHINCOLD and JCO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3NCs") joined "the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ference")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all citizens living in the countries of 3 NCs. Dams are an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water management that satisfies human and social needs. Currently, we are faced with diverse dam issu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many of which are easily identifiable in the Monsoon season of the 3 NCs.
 Accordingly it is very significant to have the conference of 3 NCs to discuss the various issues on dams.

2. The name of the Conference is "The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3. Holding the Conference
 The 9th Conference shall be held in Japan in 2016. After this Conference, a host for upcoming Conferences will be determined every two years,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3 NCs, and the hosting term shall be two years.
 The Conference shall be held biennially in the host country for the term, and it shall be held for a duration of 4 days including a symposium and a technical study tour.

4. Relationship between Asia-Pacific Group of ICOLD and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shall be comprised of 3 NCs for the foreseeable future as Korea, China and Japan have a lot of common issues on dams to address. Close geographical location and similar climatic conditions of the three countries put them in the same situation when it comes to water uses and resource management. These backgrounds allowed the Conference to be formed in a timely manner and become a comfortable venue to discuss dam issues, which are of common interest.
 Considering that East Asian countries have advanced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of Dams, the participating and/or hosting position might be expanded to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three existing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3 NCs.

The Conference will welcome the participation from Asia-Pacific Group members as well as ICOLD members to its Symposium.
 Furthermore, consult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can provide a chance of holding the Conference to a hosting candidate in East Asia, other than themselves.
 The results of the Conference shall be reported at the Asia-Pacific Group Meeting.

5. Selection of the theme for the Conference
 Themes for discussions in the Conference shall be selected at least one year before the Conference where those issues will be debated.

6. Additional meetings of the Conference
 Other than biennial regular meetings, the Conference members will have a meeting when the ICOLD Annual Meeting is hel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exchange dam-related information each other.

7. The cost for the Conference
 ① Each NC shall bear its own costs, including travel and accommodation fees.
 ② The host NC shall pay the cost for the meeting and technical study tour, including interpretation and other preparations.
 ③ Other costs will be discussed at the Conference, if necessary.

8. The language for the Conference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Conference shall be in English. Each NC may bring its own interpreter for the Conference, if necessary.

Signed by the representatives below-mentioned in Sanjung Hotel, Seoul, Korea on October 21, 2014

Choi Gyu Woon *王建平(王)* *柳川 琢二*
 GYUWOON CHOI WANG SHUCHENG NORIAKI HASHIMOTO
 Chairman of KNCOLD Chairman of CHINCOLD President of JCOLD

의 참가명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독려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또한 한·중·일 내에서만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된 합의서에 'APG 회원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라는 정도로 약하게 명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2014년 합의된 참가국 확대를 위한 실무적 논의는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는 현행사명을 유지하되, 변경 여부는 참가국 확대 상황에 따라 논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3. 4 ICOLD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 과제

국제대담회(ICOLD)는 국제간학술단체로 1928년 대담(담고 15m 이상)의 설계·시공·운영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에 관련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어 2012년 현재 96개 회

원국, 10,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조직은 총재 1명, 부총재 6명, 사무총장 1명과 25개 기술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에 한국대담회를 설립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대담회는 댐 및 관련시설의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제대담회의 한국위원회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제72차 ICOLD 집행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65개국에서 938명이 참석했는데 역대 ICOLD 연차회의 중에서 양적·질적으로 최고의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72차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윤용남 교수(고려대 토목공학과)가 한국 최초로 ICOLD의 부총재로 피선되었고, 2013년에는 엄경택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이 ICOLD의 부총재로 피선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영월댐 백지화 이후 국내의 댐사업은 위축되기 시작하여, 국내 댐건설시

장이 붕괴되고, ICOLD 연차회의 및 총회 참석마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제약되고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교류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2018년 중국 허난성 정저우(Zhengzhou)시에서 개최된 제10회 EADC에서 대전이 2020년 제11회 회의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차례 연기되어, 2022년 9월에서야 실제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만의 대면회의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몇 가지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2023년 ICOLD 부총재 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2022년 9월 현재 총재 지위에 대한 지원자가 부재함을 토로하고, 비공식이지만 한국의 총재직 지원을 타진하였다.

비록 현재 국내 댐사업은 극도의 부진과 함께 국민의 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역설적이지만 현재가 국면전환과 국내 댐기술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ICOLD에서의 총재직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댐 정책의 국면전환을 꾀하며, 국내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마침 2025년 ICOLD 총회와 연차회의가 이웃 중국 쓰촨성 청두(Chengdu)에서 열리는 만큼 분위기 조성에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EADC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ICOLD-APG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국내 인사의 ICOLD 총재직 진출 등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